

## 2만 교육·보육인 "아이 행복 대통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교육·보육인 2만명'은 7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 선대위 더하기위원회가 밝혔다.

지지자들은 "인생의 출발점인 영유아들에게만큼은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부모들이 살아갈 힘이 생긴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유보통합으로 교육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 행복 대통령!', '교육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식에는 민주당 선대위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인재근 인권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1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선 공약집에 '유보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일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격차 해소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다. (끝)

## [첨부] 현장 사진

